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적용

- 공급망 안정화 뒷받침, 국민보건 증진, 기업부담 완화 등 목적
- 현재 적용 중인 「2022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수정

수출입 통관시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Korea)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됨

※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2022년에 개편된 “세계관세기구 제7차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차기 개편인 “세계관세기구 제8차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은 ‘28.1.1 시행될 예정

이번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하는 취지는 정부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위해 가능성 있는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하여 기업의 신고 오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그리고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둘째, 먹거리 안전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되어 유통될 수 있는 남방 떡조기와 점성어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같은 독성 살충제를 세분하여 관리한다.

셋째,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무역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한다.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번 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자유무역협력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양허관세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기반으로 적용되므로 이번에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세국	책임자	과 장	최지훈 (044-215-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영미 (yym151@korea.kr)
	관세국	책임자	과 장	이종수 (044-215-4470)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담당자	사무관	손민호 (xroze@korea.kr)
	관세국	책임자	팀 장	방우리 (044-215-4460)
	다자관세팀	담당자	사무관	박지현 (bjgus@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